

고린도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전도자 바울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잠언 12:1, 고린도후서 2:15-17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지, 정, 의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또, 그리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전도운동의 제자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400 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탈출시키셨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명 밖에 없었다. 60 만 분의 2이다. 우리 인간의 체질이 불신앙체질, 불만, 불평 속에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투덜대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오해하고, 곡해한다. 그래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중심 속에 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 ‘정말로 이 분은 복음적인 분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를 할까.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전도자,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완전복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여정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결론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안되나요?’ 뒤를 돌아보고 삶을 생각해보라. 당연히 그렇게 응답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론내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공은 예배자로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강단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랬을 때 강단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과는 전혀 다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수십 명을 통해서, 천 년을 넘도록 성경말씀을 조성했는데 마치 한 탁자에 앉아서 함께 연구해서 쓴 것과 같은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과 해답과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노예생활, 광야생활, 포로생활, 속국생활이었다. 히브리서 12 장 8 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싸인이다. 그래서 빨리 결론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내면 참 행복이 지금부터 찾아온다. 기준이 내 자녀, 부부, 가정, 사업, 일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조금 안 되면 낙심한다. 왜 자살하는가. 기준이 다 이런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실현하는 현장이 바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이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한다. 증인이 되려면 결론을 내야하고,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고린도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꾸지람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결국은 치유시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시킨 바울의 사랑과 인내와 헌신이 담겨진 고린도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이다. 사도 바울은 절대불가능한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 Nobody, Nowhere, Notime 의 현장을 Everybody, Everywhere, Everytime 으로 변화시킨 치유서밋의 전도자였다. 말씀을 교훈, 교양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다.

1. 첫 번째로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10 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1)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교회에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유있는 순종과 복음을 할 줄 아는 아멘의 사람, 즉 지혜로운 에스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절대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유가 없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 장 20 절 말씀을 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 고린도교회는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놀림과 걱정을 끼친 성도들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2 장 4 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 장 17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말씀과 오직 복음, 완전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안에 다 있다.

(4) 네 번째, 고린도교회는 약속한 구제헌금을 보내지 않았다. 9 장 5 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사가 아니니라” 교회는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건속하고 진행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린도교회는 많은 물질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연보, 헌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이다.

(5)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단들의 말에는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린도후서 11 장 4 절의 말씀을 보겠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

(6)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 장 5 절에서 6 절 말씀이다. “나는 지금껏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지금껏 큰 목사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목사입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복음 전했는데 ‘집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성공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과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 사도였기 때문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차하고 불필요한 설명인 것 같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변증과 설명을 한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이해시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도에 대한 열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절대미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회와 성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절대미션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잔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과 잔소리와 훈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1) 첫 번째의 절대미션은, 어떠한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다. 요셉에게 일이 쉬웠겠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어려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with, immanuel, oneness 인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고통,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웃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 팀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과 그 팀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이 팀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는, 전도자들이 바울팀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고 절대미션으로 명령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어야 한다.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중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그 기도는 다 성취될 것이다.

(3)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당연히 벌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다. 용서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해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화해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완전 복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면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발해야 하겠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의 체질을 말하

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절대 수준, 절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5) 다음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6) 여섯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결혼과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면 반드시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비밀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대들을 위하여 3기업을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복음이 있는 우리도 영망진장인데, 하물며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나 중심, 내 이권중심, 내 주장, 돈 중심, 육신중심, 쾌락중심, 성공중심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싸움과 배신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과 사업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함께 하여 그들을 변화시킬만한 복음의 확신과 영적인 힘이 없다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에 가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후암을 꺾을 분명한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불신자현장을 빛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현장의 후암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7)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또 실패하고 안 되었습니다.’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내가 가는 곳에 후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 하셔서 땅 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언약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교회와 개인들을 치유하고 양육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의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완전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일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기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5가지 미레가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절대목표와 절대미션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를 바란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안에서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끝까지 치유하고 양육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받은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교회와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